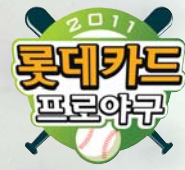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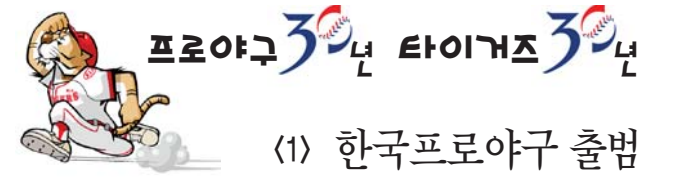




김상현 만루포 이범호 결승포 'LCK포' 터졌다



3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2011 롯데카드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2차전. 2회 말 2사 주자 만루 상황에서 김상현(오른쪽)이 좌측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리고 홈으로 들어와 최희섭(왼쪽)·이범호와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 한국프로야구 출범

한국 프로야구가 2일 올 시즌 개막과 함께 출범 30년을 맞았다. 지역민들과 동고동락했던 '타이거즈'도 서른 살이 됐다. 그 사이 프로야구는 연간 관중 600만 시대를 열었고, 타이거즈도 V10을 달성하며 전설의 명문이 됐다. 명멸해간 스타들과, 감동의 순간들을 연중 시리즈로 되돌아 본다.

무리한 시작 여론불구 지역 연고 6개팀 창단

미지의 세계이자 시계 제로의 거친 바다를 향해 맞을 올리고 출범한지 어언 30년을 맞이한 한국프로야구는 이제 순풍을 타고 대양을 순항 중이다.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했던 198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P가 1만3000달러 정도였고, 사회적으로도 프로야구를 시작하기에는 여건상 매우 불안정한 시기였다.

일반적으로 플레이어나 팬들의 지적·경제적 수준이 상당한 수준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는 프로야구는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만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다.

GNP가 2만달러 이상은 되어야하고 평균 관중동원능력이 2만여 명은 되어야한다는 조건에 반 정도를 충족시킨 상태에서 무리한 시작을 했다는 것이 당시의 여론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제5공화국의 실세들이 국민의 관심사를 정치외교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60년대부터 거세게 밀려닥친 고교야구의 열풍을 활용한 측면도 없지 않다.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물을 제공함으로써 여가를 선용케 하고 궁극적으로 민족의 대화합을 위해 스포츠의 프로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당시의 목적은 아이러니하게도 3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실현되고 있다.

한국프로야구의 태동에는 앞서 언급한 정치적인 목적과 MBC 창사 20주년 기념 이벤트에 야구 행정자인 이용일과 이호현 두 사람의 수완이 발휘되어 MBC 청룡팀이 창단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프로스포츠의 생명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인데, 지역감정이 문제였다. 하지만 프로야구 창설자들은 '지역감정이 곧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거기서 애국심도 쏠린다. 지역감정이 결코 정치적, 사회적 분규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는 믿음으로 밀어부친다.

권력 실세의 오더와 몇몇 사람의 기지에 의해 몇 개월 만에 밀그림부터 눈까지 그려내며 한국프로야구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삼미 슈퍼스타즈는 불과 6시간 만에 창단을 결정하기도 했다.

서울의 MBC 청룡, 경기·인천·강원의 삼미 슈퍼스타즈, 충남북부의 OB 베어스, 전남북부의 해태 타이거즈, 대구·경북의 삼성 라이온즈 그리고 부산·경남의 롯데 자이언츠 등 6개 팀으로 한국프로야구가 그 시작을 고하게 된다.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독교회회장>

톱타자 이용규도 홈런쇼 가세... KIA 광주 홈 개막 2연전 삼성과 1승1패

신입 호랑이 이범호가 위기의 팀을 구했다. KIA 타이거즈가 3일 무등야구장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의 시즌 2차전에서 7회말 터진 이범호의 결승 홈런을 앞세워 9-8의 재역전승을 거뒀다.

전날 삼성 체태인의 만루포에 일격을 당해 개막전 7연패를 기록했던 KIA는 한방의 힘으로 시즌 첫 승을 올렸다.

KIA 타자들이 단 두 번의 공격으로 8점을 뽑아내며 모처럼 집중력을 과시했다.

1회말 톱타자 이용규가 삼성 선발 카도쿠라의 직구를 잡아당겨 우측 담장을 넘기는 선두 타자 홈런을 기록했다. 2회말에는 김주형의 2루타가 도화선이 됐다. 이어진 이현곤의 땅볼 때 김주형이 3루로 질주했고, 삼성 유격수 김상수의 송구실책이 나왔다. 그 사이 김주형이 홈을 밟았고 이현곤은 2루까지 진루했다. 김선빈과 신종길의 볼넷을 더해 만든 2사 만루에서 이범호가 좌익수 키를 넘기는 2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3-1을 만들었다.

최희섭의 볼넷으로 다시 한번 만루를 만든 KIA는 김상현의 만루홈런으로 기선제압에 성공했다. 김상현은 카도쿠라의 직구를 잡아당겨 자신의 시즌 첫 홈런을 만루포로 장식했다.

8-2로 앞선 6회 트레비스가 연속안타와 폭투를 기록하면서 무사 1-3루에서 손영민으로 마운드 교체에 이뤄졌지만 희생플라이로 1점을 내줬다. 이후 출격한 양현종이 세 타자에게 연속으로 볼넷을 내줘 밀어내기 8-6까지 추격을 허용했고, 광정철이 투입됐지만 2점을 더 내준 뒤에야 겨우 6회 초 수비가 마무리됐다.

한국 복귀 후 첫 경기였던 2일 5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이범호가 7회말 거포 본색을 드러냈다. 앞선 1-2회 말타이를 기록하며 몸을 풀었던 이범호는 정현욱을 상대로 승리를 되찾아오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2009년 9월23일 이후 국내에서의 첫 홈런.

마무리로 출격한 유동훈은 9회 2개의 탈삼진을 잡아내는 등 팀의 승리를 지켜내며 시즌 첫 세이브를 올렸다.

이범호는 "처음 두 개의 공이 어렵게 들어와서 직구를 노리고 있었는데 노림수가 통했다. 팀 승리에 기여하게 돼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3일 'LCK포'의 본격 가동 속에 승리를 거뒀지만

순위	구단	승-패-무	승률	승차	연속
1	SK	2-0-0	1.000	--	2승
2	KIA	1-1-0	0.500	1	1승
2	삼성	1-1-0	0.500	1	1패
2	두산	1-1-0	0.500	1	1패
2	롯데	1-1-0	0.500	1	1패
2	LG	1-1-0	0.500	1	1승
2	한화	1-1-0	0.500	1	1승
8	넥센	0-2-0	0.000	2	2패

투입된 에이스 윤석민은 7회까지 사사구 없이 5회 안타 7탈삼진의 완봉투를 선보였지만 한 박자 늦은 교체와 볼펜 난조로 패전투수가 됐다. 팀은 2-6으로 재 개막전 7연패라는 수모를 당했다. KIA는

3일 초반 대량득점에 성공하고도 불펜진의 약박과 부진 속에 힘겹게 승리를 지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리거 추신수 안타 신고

한국인 메이저리거 추신수(29·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안타를 때리며 올 시즌을 시작했다.

추신수는 2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홈경기에서 5타수 1안타 1삼진을 기록했다. 클리블랜드는 화이트삭스에 10-15로 졌다.

/연합뉴스

■ 올 프로야구 1호 주인공들

두산의 4번타자 김동주가 2011 시즌 첫 홈런포의 주인공이 됐다. KIA의 4번타자 최희섭은 올 시즌 가장 먼저 2루타를 때려냈다.

2일 KIA와 삼성의 경기가 열린 광주를 비롯해 전국 4개 구장에서 프로야구 30번째 드라마가 시작됐다. 2011 프로야구는 무등야구장에 1만2500명이 찾아 만원을 이루는 등 3년 연속 전구장 만원 사례로 스타트를 끊었다. 개막을 알리는 첫 기록들도 쏟아졌다.

첫 안타는 LG와 두산의 대결이 벌어진 잠실구장에서 나왔다. LG의 톱타자 이대형은 1회초 두산 니퍼트를 상대로 좌전안타를 만들어 시즌 1호 안

첫 안타 이대형·2루타 최희섭·홈런포 김동주

타를 기록했다. 이대형은 끝이어서 2루 베이스를 홈치는 데 성공하며 시즌 1호 도루 기록도 가져갔다.

두산 김동주는 1-0으로 앞선 4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리즈로부터 좌월 솔로포를 뽑아내며 1호 홈런을 장식했다. 최희섭은 안방에서 열린 삼성과의 개막전에서 2회초 첫 타자로 나와 차우찬을 상대로 좌중간을 가르치는 2루타를 터트리며 첫 2루타를 기록했다. 1회 3루타는 두산 고영민이 때려냈다.

문학구장에서 SK 선발로 등판한 글로벌은 넥센 장기영을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1호 삼진을 잡아냈고, 5회초에는 시즌 첫 폭투도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재요 교수는

김재요 교수는 조선이공대학 광전 자정보과에서 32년째 전자공학을 강의하고 있다. 최초로 전공인 IT기술과 프로야구의 데이터를 접목, 프로야구 원년부터 현장에서 야구기록을 하며 광주MBC, KBC, KBS R/TV에서 야구해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일보 등 지면을 통해 야구칼럼리스트로 활동하며 '야구박사(김영사)'라는 저서를 내기도 했다. 광주시야구협회 이사, 무등지역야구발전추진협의회 사무국장 및 한국야구기독교회(SKBR) 회장직을 맡고 있다.

광주에는 금수장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것입니다

부담없습니다!
5만원대 중저가 비즈니스 호텔

편안합니다!
정성껏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 가족 여행객, 비즈니스 출장객에게 더욱 좋습니다.

편리합니다!
광주역에서 도보 7분! 광주고속터미널 차편 15분 거리, 전남대, 조선대, 교대, 아시아문화전당(구도청) 예술의 거리, 총장로 등 시내 주요 거점이 10분 거리,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인접 전 객실Free Wifi, 비즈니스 센터, 한식당, 커피숍, 와인바, 연회장 등, 다양한 부대시설

따뜻하고 아늑한객실과 24시간 룸서비스와 여행에 제공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뫼한뫼 바늘로 꼬매어 정성스레 준비하는 깨끗한 침구는 저희의 자랑입니다.

객실요금
4만원부터

www.geumsoojang.com

금수장관광호텔 • 예약문의 062)525-2111(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